

15' 1학기 프랑스문화산책 주제노트 작성



# 프랑스 인상파 미술에 대한 뇌과학적 접근



생명공학부 2014140218 이원영

# Index

1  Non-moi?

2  진로와  
주제의 연관성

3  프랑스 미술을  
통해  
뇌과학

4  한국과의  
차이점





1 Non-moi? = ‘비아(非我)’

훌륭한 예술가들의 길

이 과정이 바로 여행(voyage) : 고난의 길

‘나’를 위한 나

- 내가 알고 있는 나
- 내가 원하는 나
- 자기중심적
- 고독, solitude
- 같음을 추구
- 생산성, 노동(work)

‘남’을 위한 나

- 내가 알지 못하는 나
- 아무도 원하지 않는 나
- 타인중심적, 비생산성
- 군중, multitude
- 다름을 추구
- 비생산성, 성(sex)



# 1 Non-moi?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대중가수 자우림의 노래 ‘가시나무’의 가사말처럼 내 속에는 수 많은 내가 존재한다. 꿈을 위해 쉴 틈 없이 노력하는 나, 당장의 편안함을 위해 과제를 뒤로 미루는 나, 음악과 자유를 사랑하는 나, 자유 속의 규제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나...

이렇듯 수많은 같음 속에 다름이 있고, 수 많은 다름 속에 같음이 있다. 사람다운 사람은 어제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야 한다.

어제까지의 내가 ‘나’만을 위한 나였다 해도, 오늘부터의 나는 ‘남’을 위한 내가 되고자 하는 생각에서 Non-moi가 시작된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는 정치가의 단언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바랐던 시인 윤동주. 그 둘의 차이를 알아볼 수 있는 눈. 어린 왕자의 모자 그림에서 코끼리를 삼킨 보아 뱀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이다. 이런 눈을 가지게 되면 비로소 Non-moi를 이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1 Non-moi?

Non-moi 정신은 개인이 아닌 전 시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시작되었던 프랑스 혁명에서부터 비롯되었다. 마차에 치여서 죽는 사람들을 보고 보도를 건설한 나폴레옹과,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 가난하지만 존경 받았던 의사와 변호사들, 차가 없이 걸어 다니는 교수들...

프랑스는 문화(文化)를 유지해 온 예술가들의 정신이 살아있었으며, 당대의 과학자들은 문학자들보다 더 문학을 가까이 할 정도로 깨어있는 예술가들이었다. 개인을 위한 출세가 아닌 사회 전체를 위한 출세가 당연시 되던 시민의식이 자리 잡혀 있던 나라인 것이다.



2

진로와

주제의 연관성 : '나'의 희망 진로 **뇌공학자**

Brain Engineer



마네와 피카소를 비롯해 많은 인상파 화가들은 전두엽과 측두엽 쪽의 뇌를 손상 당하면서 오히려 전두엽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각중추 담당영역인 후두엽이 활성화 되어 더 위대한 그림들을 그려낼 수 있었다.

정신 분열상태의 사람이나 창작활동이 뛰어났던 천재 예술가들의 두뇌 속은 도파민 수용체가 저하되어 많은 정보를 걸러내지 못하게 되고, 결국 정보들이 뒤죽박죽으로 섞여 환각과 망상에 시달리게 되는 것 또한 공통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천재는 수많은 정보들을 자유롭게 엮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데에 반해 정신 질환자는 그 정보를 소화시키지 못하고 혼돈 속에 살아간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p341)

뇌과학 여행사(신경과 의사, 예술의 도시에서 뇌를 보다). 2011. 김종성. 사이언스북스



3 프랑스 미술을  
통해 본  
뇌과학

# Mont Sainte-Victoire 생트 빅투아르 산

십 수년 간(1890~1906) 똑같은 대상을 40여 번 이상 반복해서 그렸던 화가 세잔



눈과 머리 두 가지를 갖고 있다. 눈으로 집중해 대상을 잡아내면 머리로 표현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1905, Paul Cezanne



### 3 프랑스 미술을 통해 본 뇌과학



세잔은 대상을 바라보며 있는 그대로 그리려 하지 않았다. 본다는 것은 눈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했다. 보는 것은 사물의 실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감각적 부분들로 해체함으로써 정신을 덧씌우는 과정을 거치며, 이미 우리 머리에서 해석된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과학자가 실험을 하듯 40여 번이나 생트 빅투아르 산을 그리면서 그림은 변했다. 말년에는 산과 나무의 윤곽선이 완전히 없어지고 중첩해 칠한 색 조각만 남았다.

- 김정화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3 프랑스 미술을  
통해 본  
뇌과학

## Rouen Cathedral 루앙 대성당



Claude Monet 클로드 모네

원본은 없다.

어느 것도 진정한 루앙 대성당이 아니며,  
모두가 진정한 루앙 대성당이다.

타인의 시각에 몰두하지 말며,  
이성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라.  
사물에 몰두하지 말고,  
시간에 귀속되지 마라.  
있는 그대로를 보고,  
이해하려 하지 마라.



3 프랑스 미술을  
통해 본  
뇌과학



몽토르고이 거리를 따라 걸려 있는 깃발들은 여러분이 그 깃발을 직접 보지 않았거나 그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보고 난 후에도, 처음에 언뜻 봤을 때는 명확하게 보였을 것이다.

그림에서의 공간적 불명확함은 처음에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다. 인간의 뇌는 공간적 불명확함을 만났을 때 착시 결합을 허용하여 대상을 완전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즉, 낮은 공간적 명확성은 오히려 그림에 생동감을 줄 수 있다. 그림을 볼 때마다 시각체계가 매번 다르게 그림을 완전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Rue montorgueil in Paris,  
Festival of June 30, 1878

파리 몽토르고이 거리,  
1878년 6월 30일의 축제

Claude Monet 클로드 모네



3 프랑스 미술을  
통해 본  
뇌과학



더 많은 움직임을 묘사했지만 모네의 몽토르고이 거리보다는 정적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의 뇌가 일시적인 순간에 이렇게 많은 세부를 알아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The rape of the Sabine women  
사비니 여인의 강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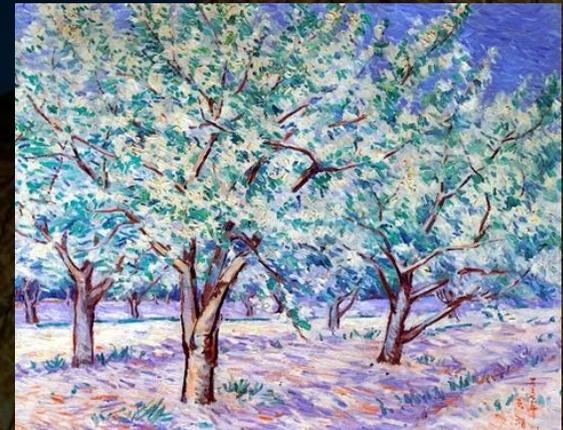
Nicolas Poussin 니콜라 푸생



이인성, 가을 어느날



나혜석, 스페인 국경



오지호, 임금원

한국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 활동한 인상파 작가들의 눈에 띄는 작품들이 존재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대학진학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학업에 정진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다. 시험점수 1점 깎이는 것엔 마음 아파해도 친구의 외로움은 돌아봐주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프랑스의 Non-moi 정신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

나 또한 작년 한 해, 대학 신입생으로서 1년을 보냈다. 하지만, 진정으로 내 진로에 대해 고민해 본 것이 얼마만인지.... 대학에 와서도 온갖 스펙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소위 돈 많이 벌 수 있는 전문직이 되라는 주변의 충고에 휩쓸려 온전히 내가 선택해야만 할 진로 문제에 있어서도 많이 고민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나에게 프랑스 문화산책 수업은 새로운 기회가 되어 주었다.

어린 왕자는 어린 아이들이나 보는 동화책이라고 생각했던 나는, 어린 왕자라는 훌륭한 소설의 속뜻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고, 토탈 이클립스를 혼자 보며 랭보라는 한 인간의 삶의 방식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고민이라고는 당장 눈 앞에 닥친 내 문제 뿐이던 나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정말로 신선한 경험이었다.

어린 왕자를 더 많이 읽어보고 싶다.  
그리고, 나이가 들 수록 어린 왕자의 말들을 더욱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

## Reference 참고문헌

- Vision and Art 시각과 예술. 2010. 마거릿 리빙스턴. 정호경 역. 두성북스
- 뇌과학 여행자(신경과 의사, 예술의 도시에서 뇌를 보다). 2011. 김종성. 사이언스북스
- 강석기의 과학카페 시리즈. 2012. 강석기. 도서출판 엠아이디MiD
- [예술 속 과학읽기] 신경과학과 생트 빅투아르 산. 2012. 김정화. 국민일보. [online] Available at: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6290690&code=11171365> [Accessed 2012년 12월 29일]
- 순간의 과학, 19세기 모네의 21세기 시각. 2013. 도혜림. Tumblr. [online] Available at: [https://www.google.co.kr/?index=&gws\\_rd=ssl#newwindow=1&q=%EC%88%9C%EA%B0%84%EC%9D%98+%EB%AF%B8%ED%95%99%2C+19%EC%84%B8%EA%B8%B0+%EB%AA%A8%EB%84%A4%EC%9D%98+21%EC%84%B8%EA%B8%B0+%EC%8B%9C%EA%B0%81](https://www.google.co.kr/?index=&gws_rd=ssl#newwindow=1&q=%EC%88%9C%EA%B0%84%EC%9D%98+%EB%AF%B8%ED%95%99%2C+19%EC%84%B8%EA%B8%B0+%EB%AA%A8%EB%84%A4%EC%9D%98+21%EC%84%B8%EA%B8%B0+%EC%8B%9C%EA%B0%81)

Merçi  
Thank You

